

## 個人發明家와 惡德辯護士

—外國에서 있는 事例 한토막—

A企業은 外部新技術을 속히 導入하는 手段으로서 去來外國의 駐在支社內에 技術센터를 開設하고 内外國人에게 開放하여 社內技術陣의 能力向上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A支社의 P支社長은 美國人發明家 V의 面談申請을 받았다. 面接자리에서 V는 自己의 特許를 提示하면서 A社가 販賣하는 렌트겐攝影機가 그 特許權에 抵觸한다 하여 A社로 하여금 그 특허권을 買受하자고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A社는 即時 顧問辨理社에게 鑑定을 依頼한 바 그 結果는 V特許權利範圍가 좁아 A社製品은 그 權利侵害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다른 辨理士는 V의 特許權이 出願節次上 不注意로 권리범위는 좁으나 發明自體는 劃期的이므로 V의 發明能力을 높이 評價해야 한다는 助言이었다.

이같은 두갈래 結論에 따라 A는 技術센터의 支援活用이라는 名目아래 그 특허권을 싼 값으로 買受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V와의 交渉에 着手했다. V는 이에 응하면서 그위의 協力을 約束함으로써 無難히 終結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W라는 發明家로부터 또 다른 특허권의 매수를 요구받았고 감정결과 이 특허도 自社製品이 침해하지 않았음이 確認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買受提議를 拒否하기로 會社方針을 굳혔다.

이때 W는 A가 V특허를 매수한 事實을 指摘하면서 다음날에는 그의 辯護士 C를 同伴하여 P에게 不正競爭防止法과 反덤핑法등을 들추면서 提訴의 可能性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A는 V때와 같이 同額으로 매수함으로써 W事件도 一段落지었다.

이번에는 발명가인 X와 Y가 각각 나타나 P

에게 V 및 W와의 사건을 들추면서 비슷한 條件이 제시되어 協商中에 또 Z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나왔다.

A社內에서는 甲論乙駁끝에 特許辯護士인 D와 相議한 다음 D로하여금 技術者로 假裝시켜 同技術센터를 出入케 하였다.

그로부터 1週日後에 얻은 情報은 C는 惡質辯護士이며 美國에서는 이들 악덕변호사가 個人發明家和 詐고 企業의 虛點을 노려 無價値한 발명의 매수를 強要하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이에 따라 A는 X와 Y 및 Z와의 교섭을 벌였으나 이때 C는 계속하여 그들 특허권의 매수를 固執하였다.

한편 A는 다음날로부터 X, Y, Z를 相對로 特許權非侵害確認訴訟의 提起를 準備하였다. 이같은 A의 提訴書類를 본 X, Y, Z는 狼狽한 빛을 나타냈으나 C는 平穩한척하면서 裁判에 응할 뜻을 밝히므로 A는 하는수없이 法院에 제소하고 말았다.

이때 X는 和解條件으로 技術센터에의 繼續出入을 요구하여 A는 이를 受落하였고 Y도 X를 따랐다. 다만 Z는 C가 하라는대로 反訴姿勢를 취했으며 C는 이같은 條件以外에 稅關에 대하여 A製品輸入禁止, 商務省에는 反덤핑 調查申請이라는 高度戰略으로 反擊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는동안 어느 2個企業에서 同事件에 協力 하겠다는 提請이 있었는데 이들이야말로 그동안 A와 비슷한 處地에서 혼이난 기업들이었다.

이들과의 協議에 따라 C변호사의 過去에 있었던 詐欺·脅迫事件을 들추어 『매스컴에 提報함으로써 世論의 逆轉效果를 거두게 되었다.』

이로써 Z는 反訴를 取下하였고 사건도 매듭을 지었다.